

University of Minnesota(Spring)

전자과 10학번

전천후

1. 출국 전 준비

우선, 지원을 위해 토플점수가 필요합니다. 늦어도 가고 싶은 학기의 1년전에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봄학기의 경우 지원자가 많이 없으므로 크게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교내 선발 된 이후 서류 작성은 국제협력팀에 문의하면서 작성하시면 쉽게 완성됩니다. 비자 발급의 경우, 학기 중에 미리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봄학기는 1월 중순에 시작하고, 보통 일주일 전에 출국을 하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사고(비자 거절 등)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 준비는 인터넷을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2. 기숙사

U of M에 서류를 제출할 때, 기숙사 순위와 원하는 방의 형태를 정하게 됩니다. 각각의 기숙사는 지리적으로 그리고 환경적으로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하여야 합니다. U of M은 미시시피 강을 기준으로 East Bank와 West Bank로 나뉘는데, 대부분의 공과 수업은 East Bank에서 진행됩니다. East Bank 기숙사의 경우 대표적으로 SuperBlock에 위치한 4개의 dorm(Centennial, Pioneer 등)과 Udof Hall, Comstock Hall 등이 있습니다. U of M이 생각보다 넓게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것이 아니라서 EastBank에 위치한 주요건물들은 보통 10~15분이면 다 걸어도 됩니다. 그래서 dorm의 위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Centennial에서 살았는데 신입생들과 다른 국제학생들이 많이 살기는 했지만 기숙사 구조상 친해지기도 쉽지 않고, 건물이 조금 낡았고 부엌이나 세탁실의 위치가 방에서 멀리있습니다. 장점은 dining hall이 있어서 쉽게 밥을 먹을 수 있고, 나름 밥은 맛있게 먹었습니다. 국제 학생들 혹은 한국인이 조금 있는 곳은 EastBank에서 Centennial 그리고 WestBank에서 MiddleBrook 입니다. MiddleBrook은 확실히 최신 건물이고 밥도 조금 더 맛있습디다만 수업을 위해 EastBank로 넘어가려면 걸어서 10~15분 정도 걸립니다.

기숙사 말고도 여러 아파트를 제공하는데 그 중 Universal Village에 많은 국제학생들이 배정됩니다. 기숙사와는 달리 의무적으로 MealPlan을 신청할 필요가 없어 음식을 만들어 먹는 것을 좋아한다면 충분히 돈을 아낄 수 있습니다. 사실, dining hall 한끼가 보통 만원을 넘기 때문에 먹는데서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습니다. 버스를 타고 조금만 나가면 Wall Mart라고 대형마트도 있고, 한인마트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숙사와는 달리 아파트 형식이라 거실도 있고 하여, 룸메이트의 동의 하에 친구들을 데리고 와 파티를 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수업을 가려면 버스를 이용

해야 하는데, UPass라고 한 학기동안 버스를 무제한 탈 수 있는 카드가 있어서 이를 신청해서 많이들 사용합니다.

학교에서 제공하는 기숙사나 아파트 외에 따로 사설 아파트를 찾아 지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1년 단위의 계약이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뿐더러, U of M에 있는 사람의 도움없이 한국에서만 방을 구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 룸메이트 없이 혼자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룸메이트와 함께 사는 것을 추천합니다. 방에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친해질 수도 있고, U of M과 미국에 대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초반에 학교에 가서 이것저것 할 것이 많은데, 룸메이트가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대학생활

아쉬운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 학기였습니다. 단기 유학을 통해 친구도 사귀고 영어도 공부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만 생각보다 쉽지 않은 학기였던 것 같습니다. 겨울 날씨는 정말 추웠을 때는 영하 30도까지 내려갑니다. 따라서 봄학기에 갈 분들은 따뜻하게 준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우선, U of M에서 다양한 전공공부 혹은 교양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청해서 들으면 됩니다. 영어를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학점을 많이 안 듣는 것을 권합니다. 저 같은 경우 15학점을 들었는데, 전공이 숙제가 많다보니 생각보다 영어 공부할 시간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U of M에서 국제 학생들을 위한 영어수업(5학점)이 있는데 아쉽게도 postech에서 이수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영어를 크게 향상시키고 싶은 분들은 타 학점을 조금 줄이고 이수는 안되지만 이것을 들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혹은 학교에 이수가능성에 대해 건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매주 금요일 마다 행사가 정말 많습니다. 격주로 국제학생들을 위한 행사가 있고, 매주 여러 나라에서 동아리 부스 형식으로 파티나 이벤트 등을 합니다. 거기에 오는 친구들은 보통 활발하고 이야기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친구를 만들기도 좋고 가서 같이 이야기하면서 영어 실력향상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 거의 빠짐없이 매주 나갔고, 거의 모든 친구들을 거기에서 만났고 항상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귀찮다고 방에 있지 마시고, 한 번 밖에 없는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행사는 빠짐없이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Rec Center라고 정말 큰 체육관이 있습니다. 헬스장도 엄청 크고, 수영장, 농구, 암벽등반 등 여러 활동들을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과 관련해서 수많은 수업들이 있기 때문에 학점이수 여부를 상관없이 하나 정도 듣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4. 과목정보

4-1. Wireless Hardware Design(EE4607) - 3학점

postech에는 없는 과목으로, 전체적으로 무선 통신을 위한 hardware components를 배웁니다. 송수신을 한 signal을 hardware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 총괄적인 개념을 알게됩니다. Impedance matching에 대해 자세히 다루기 때문에 postech 전자과 과목인 전자장 과목을 선수강 해야합니다. 기본적인 filter, mixer, modulation, noise 등의 개념이 나오긴 하지만 크게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3학년 학생들도 충분히 들을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시험의 난이도는 숙제 내용과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4-2. Computer Architecture and Machine Organization(EE4363) - 4학점

MIPs instruction sets, Cache, Bus 등 3학년 과목인 마이크로프로세서의 연장과목입니다. 랩 시간에는 교재 내용과 Verilog code에 대해 아주 살짝 다루게 됩니다. 시험의 난이도는 무난합니다. 숙제 내용과 거의 비슷합니다. 단기 유학을 하면서 듣기에 부담없다고 생각합니다.

4-3. Introduction to C/C++ Programming Language.(CSCI1113) - 4학점

수업시간에 C++를 배우고 랩시간에 2인 1조가 되어 매주 숙제를 해 나가게 됩니다. 난이도의 경우 프로그래밍의 경험만 있다면 쉽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조별 프로그래밍이기 때문에 조원과 친해질 수 있습니다. Postech의 객체과목을 대체 가능합니다. 시험의 난이도는 전산보다 훨씬 쉽습니다. C++을 배우고 싶으시면 강력히 추천합니다.

4-4. Soccer(PE1072) - 1학점

아침 8시부터 2시간씩 일주일에 두 번 있는 수업입니다. Spring Break라고 봄방학을 기준으로 반을 나뉘는데 보통 한달 반 정도만 수업하면 성적이 나옵니다. 단, 아침에 못 일어나 결석을 하면 타격이 크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30명 정도 수강하며 30분은 기본 훈련을 하고 나머지 시간은 경기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짧은 기간 수강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배우기는 힘들다고 판단됩니다. 시험은 축구 선수에 대한 보고서 하나와 기본기 훈련을 테스트 합니다.

4-5. Bowling(PE1048) - 1학점

볼링 수업입니다. 성적은 출석이 100%입니다. 다만, 볼링을 전문적으로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수업을 가면 사람들과 팀을 나눠 볼링을 2시간 동안 치는 게 전부입니다. 전문적으로 배우지는 않지만 거기서 많은 사람들과 볼링을 치면서 이야기하며 친해질 수 있습니다.

4-6. Guitar(MUS1471) – 2학점

클래식 기타 수업입니다. 기타수업은 1과 2로 나뉘는 1의 경우 완전 생초보를 위한 과목이고, 2는 advance course로 악보를 조금 볼 줄 아시면 2를 추천합니다. 저는 1을 들었는데 정말 처음부터 가르쳐줘서 약간 지루한 감이 있었습니다. 시험은 수업 때 배운 곡을 연주하는 것입니다. 기타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강력히 추천합니다.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주기 때문에 쉽게 익힐 수 있습니다. 수업 후반부에는 통기타에 쓰이는 기본 코드와 여러 stroke를 가르쳐 줍니다.

5. 항공정보

저는 인터파크 항공을 통해 약 출국 2달전에 구매했습니다. 왕복 170만원으로 Air Canada 항공사를 이용하였습니다. 아래 링크는 미국 내에서 국내선 구입하기 좋은 사이트 입니다.

<http://www.hotwire.com/>

6. 여행정보

봄학기에 U of M에 가게 되면 Spring Break로 약 1주일간의 방학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샌프란시스코를 일주일 정도 다녀왔습니다. U of M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들과 같이 갔었고, 차가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쉬운 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미네소타 주위에 갈 만한 곳으로는 시카고가 있는데 2~3일이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 같은 경우 학기가 끝나고 약 3주 정도 미국의 큰 도시들을 여행하였습니다. LA, 라스베가스, 샌프란시스코, 샌디에이고, 워싱턴DC, 나이아가라 폭포, 보스턴, 뉴욕에 갔다왔습니다. 혹시나 궁금한 것 있으면 메일 보내시면 성실히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ch923@postech.ac.kr)

이동 수단은 보통 기차, 버스 등이 있고, 동서부 횡단은 보통 비행기를 이용합니다. 암트랙은 우리나라 KTX같은 개념이고, 버스의 경우 greyhound가 미국 전역에 걸쳐 운행합니다. 동부에 가시면 메가버스, 피터팬 등을 통해 싸게 티켓을 구할 수 있습니다.

호스텔 및 호텔은 다음 사이트에서 주로 이용하였습니다.

<http://www.hostelworld.com/>

<http://www.booking.com/>

여행 경비의 경우 먹는 것과 자는 것 교통수단에서 절약하였지만, 다양한 테마파크와 뮤지컬 관람 등 많은 것을 봤었기 때문에 평균 하루에 1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여행 경비를 제외하고 학비+생활비는 약 1700만원을 사용했습니다.